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“돈의 논리·횡포를 폭로한다”-‘反재벌론’ 다룬 새책 2권 눈길 / 「돈皇帝」, 그룹총수 근림실상 신랄한 풍자 / 「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」, 김우중회장 자본철학 정면비판(한겨레신문 11월9일 조선희기자)
- ‘시간관리’서적 직장인에 큰 인기 / 「1분활용법」등 구체적 방법 제시 / 「시간관리와 자아실현」등 베스트셀러 부상(세계일보 11월9일)
- “한국도 출판대국 멀지 않았다”-창립20주년 출판학회 ‘동경세미나’ 주도 / 국제학회·연구센터 설립 앞장 / 이론과 제작현장 연계 등 당면과제 쌓여(세계일보 11월9일)
- 해방이후 문학사 정리 활발-90년대 앞두고 문학사서적 출간 잇달아 / 88해금조치 이후 작업속구 팽배 / 80년대 마감 시대인식도 가세(한국경제신문 11월9일 朴聖姬기자)
- “세계 최대 중국어사전 나왔다”-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착수 17년만에 출간 / 어휘 18만...자료만 트럭2대분 / 중국학자 교열·감수 대거참여(동아일보 11월9일 金次洙기자)
- “잡지홍수, 지나친 경쟁 불 것이 없다”-오진환교수 ‘잡지위상제정립’세미나서 지적 / 6·29후 4천3백종...선정주의·유사제도 난립 / 신문사의兼營 지양 등 제도적 개선 필요(국민일보 11월9일 朴太堅기자)
- “월간지, 기사보다 광고면에 더 치중”-한국잡지연구소 독자대상 설문조사 결과 / 구입기준...정보·전문성 우선 70% / 학생독자가 절반 이상...“너무 비싸”(서울경제신문 11월10일 姜升遠기자)
- “편찬 17년...『중한사전』 나왔다”-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서 세계 최대규모로 펴내 / 18만 어휘...모든 전문용어 총망라 / 중국학자 참여...학문역량 “절정판”(한국일보 11월10일 金薰기자)
- 세계 최대 중국어사전 “한·중

- 합작” / 고려대서 편찬 배경·연변대 감수...1단계 18만단어 / 27만명 17년간 매달려 ‘30만·9만단어수록 사전’도 곧 발간(조선일보 11월10일 金泰翼기자)
- 「한국불교전서」 20년만에 완간 / 동국대, 불경·시문 등 집대성 / 전 10권...고려 義天이후 최대(조선일보 11월10일)
- “민족동질성 찾자”북한연구서 출간 봄 / 을유문화사, 문예진흥원 등 분야별 방대한 기획 / 일부는 이미 선 배...「객관적 실제」접근 주력(경향신문 11월10일 李載俊기자)
- 월남전 재조명 장편소설 출간 활발 / 작가들 참전경험 바탕...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/ 「월남의 고통은 분단의 아픔」으로 공감대 찾아(세계일보 11월10일 梁憲錫기자)
- 「한국불교전서」 전10권 완간 / 동국대 20년만에...원효·무학 등 저술 망라 / 시대·저자별 분류 불교사상 흐름 한눈에(중앙일보 11월11일)
- “월남전쟁 소재 소설들 다시 관심 높아졌다”-안정호 「하얀 전쟁」 미국서 화제모아 / 80년대 후반부터 장편 소설 쏟아져(일간스포츠 11월11일 金炳勳기자)
- 김우중회장 수필집 「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」-3일만에 베스트셀러로...석달간 63만부 “신기록”(중앙경제신문 11월12일 柳奎夏기자)
- 한국불교 1천6백년 흐름 집대성-「한국불교전서」 「원효聖師전서」 완간 / 신라~조선 명승들이 쓴 261종 문헌정리 / 법화경 등 실철불교 사상 완벽히 국역(세계일보 11월12일 李揆元기자)
- “세계는 넓고...」 2억印稅 ‘할 일’ 찾았다”-청소년가장 아파트 짓기로 / 저자 김우중회장 결단(조선일보 11월12일 石琮薰기자)
- 소설 「돈황제」 대형서점서 ‘증발’-교보문고·현대백화점 ‘위에서 지시’(한겨레신문 11월12일)
- 실종된 朴魯甲 문화호적 복원-소설 50여편 모아 전집 발간 / 30년대부터 활약 리얼리즘 추구(한국일보 11월12일)
- 「한국불교전서」 20년만에 완간-동국대 10억원들여...원효 등의 저술 수록(서울신문 11월12일 黃圭鎬기자)
- 영어권서적 한국어 번역출판 독점 논란-재미작가 金恩國씨의 ‘트랜스 리트’에이전시 미·유럽 저명출판사·에이전시의 거미줄계약...영향력 요지부동(중앙일보 11월13일

- 鄭僑溶기자)
- 80년대 출판 결산-물량 세계10위...등록사 4천여곳 / 국제저작권 가입...번역소개 추중 / 이념서적 파문...압수·판금 되풀이 / 일산에 관련업체 모인 전문단지 건설(서울신문 11월14일)
- 딱딱한 책, 만화로 얘기하듯 풀어준다 / 「자본론」 「노동의 역사」 등 큰 호응 / 국내필자 부족이 큰 문제(동아일보 11월14일 梁泳彩기자)
- 한길사, 인문사회과학총서 출간 / 다양·무분별한 사상이론 개념을 주제적 시각으로 논리적 정리(매일경제신문 11월14일 李奉濤기자)
- “출판은 독자와 시대흐름 파악해야 성공”-김영社 朴恩珠씨 / 책도 사람과 같이 애정으로 만들어야 사랑받아(동아일보 11월14일 高美錫기자)
- 가락도매시장서 도서실 운영-金興龍씨 책2천5백권 기증 / 상인·주부 등 매일 100여명 이용 / 개가식에도 없어지는 책 없어(한국일보 11월15일 徐華淑기자)
- 공공도서관업무 “문화부전담 바람직”-문교·내무·문공부 3원화로 행정난맥...관련단체 대정부 건의 / “문헌정보관리·출판문화발전 위해 불가피”(경향신문 11월15일 安健嫻기자)
- 책상품권 발행·유통구조 개선 “독서문화 활성화 대책을”-서울도서유통개선협 공청회 / 선물교환 등 저변확대 당국서 나서야(한겨레신문 11월16일 신연숙기자)
- 작은 도서실 지역문화공간 정착-2년전 ‘글서당’ 첫선...꾸준히 늘어 / 젊은이 중심 운영...사회개발 한몫 / 책 빌려주고 상담도 받아...사랑 ‘듬뿍’(국민일보 11월16일 裴在善기자)
- “4년제대학에 인쇄학과 개설하자”-「사회발전과 21세기의 인쇄문화」 세미나 / 회원업체 年매출액 7천억원(세계일보 11월16일 申敏亨기자)
- 세계 최대 중국어사전 편찬-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「중한사전」 17년만에(세계일보 11월16일 李伸洙기자)
- 고려사 첫 조명 역사소설-원로 張德祚씨 「고려왕조 5백년」 펴내(한국경제신문 11월16일 朴聖姬기자)
- “입시전락서적 불티난다” / 기억력증진·학습법·시험 치르는 요령 등 소개 / 총 20여종 지방학교선택,

- 부모역할 다룬 것도(일간스포츠 11월17일 陸紅朶기자)
- 중·소 동포 문학 출간 ‘러시’ / 신작 국내지면 첫발표도 늘어 / 아나톨리金 등 대표작 본격 도입(조선일보 11월17일 金明煥기자)
- ‘80년대의 책’ 242권 선정-「출판저널」 각계전문가 43명 추천받아 심사 / 「러시아 혁명사」 「장길산」 등 / 사회·문화사적 의미 강조(서울경제신문 11월17일 姜升遠기자)
- 도서유통질서 개선 움직임 활발-유통개선협의회서 주도 / 「덤핑·악성어음 남발 막아야」 / 「상품권발행」 서명운동, 서점계·독자와 토론도(중앙경제신문 11월17일 金龍善기자)
- “국내 학술논문 분야별 색인집 나왔다” / 최근 10년 발표 37만여편...전14권 / 김학준·김윤식씨 등 ‘多作1위’(조선일보 11월18일 崔球植기자)
- 계몽사·종로학원 ‘손잡고’ 학습지 시장 진출 / 기존 업체들 위기의식 크게 느껴 / “1백만 회원 확보, 보름 안에 결판” 장담(국민일보 11월18일 朴太堅기자)
- 「한국불교전서」 완간 1천6백년 사상흐름 한눈에... / 동국대 20년 노작 햇빛 / 전래후 국내 저술 성과 / 총10책...시대·저자별로 분류(내외경제신문 11월18일)
- 6국3일...도서관 업무도 전담-문화부기구·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/ 국제구 등 2개국 신설...장관자리 주목 / 전통쪽에 문예기금 매년 3백억 지원(한겨레신문 11월19일 최성민기자)
- “80년대 문학에 새 경지 열었다”-「출판저널」지 80년대의 책 242권 선정 / 「토지」 「장길산」 「태백산맥」 등 대호소설 봄 / 이념서적 홍수속 북한원전까지 소개 / 박노해 「노동의 새벽」, 민중지향문학에 기폭제로(조선일보 11월19일 崔球植기자)
- 출판계 “물량은 外華...수준은 內貧” / 한해 1억6천만부 발행...서점만 4천8백개 / 학습참고서가 절반...번역은 오히려 줄어(조선일보 11월19일)
- “선물용책으로 독자마음 끈다”-출판사 불황 탈출 몸부림 / 연말겨냥 「해방전후사의 인식」 「한국漢詩」 등 / 간판기획물 상자·보자기로 묶어 판매(동아일보 11월21일 梁泳彩기자)

- “독립투쟁사를 아동도서로 엮는게 꿈”-계몽사 金源大회장 / 고유민속 연구 심취 온양박물관집무 전념(국민일보 11월22일 金雄光기자)
- 기획출판시대 개막 / 문학과지성사·세계사·민음사 등 새 시리즈 계획 / 인문사회과학서 상업성 확보 시사 / 한 주제로 같은 유형 소개... “분야 다양화돼야”(내외경제신문 11월22일 南眞祐기자)
- 박노해 관련 책 2권 출간-산문집 「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」 「박노해현상」 / 노동현실 대면...정치사회적 충격 던져(내외경제신문 11월22일)
- 기업들 PR단행본 출간 봄 / 사보와 달리 일관된 주제로 이미지 부각 / 작품공모·사보내용 등 묶어 시판까지도(세계일보 11월23일)
- 북한의 문화예술 한눈에-고려원·문예진흥원 공동으로 총서 발간 / 100% 新稿로 내년봄까지 12권 펴내 / 혁명가극 등 객관적 실태 파악에 도움(세계일보 11월23일)
- 일본 경제·경영도서 출간 붐 / 「서태평양시대가 오고 있다」 등 세계 흐름 상세히 설명 / 한국 구조적 딜레마 지적 참고할만(매일경제신문 11월23일 李奉濤기자)
- 청소년잡지 흥미위주 선정적 내용 일색 / 교양학습기사는 10%도 안 돼 / 값 비싸고 광고 많아 不實 더해(동아일보 11월23일 李英伊기자)
- “소규모 전문서점 늘고 있다” / 예술·과학 등 세분화...서점가 형성도(한겨레신문 11월24일 신연숙기자)
- 잡지홍수시대 / 등록총수 무려 4천2백여개 / 비슷한 제호 많아 독자에 혼란 / 창의성·질적 향상 기록되야(내외경제신문 11월24일 南眞祐기자)
- 80년대 ‘베스트셀러 12’ 선정-서평 전문지 「출판저널」서 / 문학·역사·교양 등 10개부문으로 나뉘 / 판매량보다 “대중적 관심의 반영” 기준(경향신문 11월24일 安健嫻기자)
- 공정거래 위반혐의 동아출판사 被訴-金相文씨 “시준호황 불구” 「대입정보시리즈」 치명타 주장 / “金權으로 참고서 판로 막았다”(조선일보 11월25일 崔球植기자)